원희룡 장관, "쪽방촌 주거여건 개선 위한 조속한 사업 추진" 당부

- 7일 영등포 쪽방촌 주민 간담회… 주거환경·수해·재정책(이주) 대책 점검

□ **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**은 **11월 7일(화) 오후 3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를 방문**하여 침수, 화재 등의 **재해**에 **취약**한 **주거환경**을 살펴보고, **쪽방촌 주민**들과 **간담회**를 개최하였다.

○ **쪽방은 6.6㎡ 이내**의 **좁은 방**이 여러 개 모여있는 구조로, 쪽방촌 거주자들은 **월 20~30만원의 임대료**를 내고도 건강을 위협받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다.

○ 쪽방촌은 **부실한 지붕**과 **배수**시설로 인해 **누수, 곰팡이**가 발생하는 등 주거 여건이 열악하고, 여름철에는 **상습적으로 침수 피해**를 입는 등 재해에도 취약하였다.

□ 이에 **국토부**는 열악한 **주거환경**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, **침수 등 재해로부터 위험**을 저감하기 위해 '20년도부터 영등포역, 서울역, 대전역 인근에 위치한 **쪽방 밀집지역 3곳**을 **전면 정비**하는 **공공주택 사업**을 추진하고 있다.

○ 이 중 **오늘 원장관이 방문**한 **영등포역 쪽방촌**에는 **416명이 거주** 중으로, 국토부는 **'22년 9월 공공주택 지구계획**을 **승인**하여, **현재 내년 말 공사착공**을 목표로 **보상절차를 준비**하고 있다.

□ **원장관**은 영등포 쪽방촌 **주민과의 간담회**에서 "**쪽방촌 정비사업**은 사업 과정에서 세입자 등 **주민의 내몰림이 발생하지 않는 것**이 **가장 중요**하다"며, **주민이주**와 **재정착**과 관련된 **대책을 철저히 점검**하였다. 또한 **사업이 신속**하고 **원활히 추진**될 수 있도록 **사업시행 관련기관**에게 **협조를 당부**하였다.

○ 아울러 "국토부는 **윤석열 정부** 출범 이후 **'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'**이라는 **국정과제** 아래 **쪽방촌 공공주택 사업**과 같이 **열악한 주거지역을 개선**하기 위한 **정책**을 **지속적으로 추진**해 왔다"면서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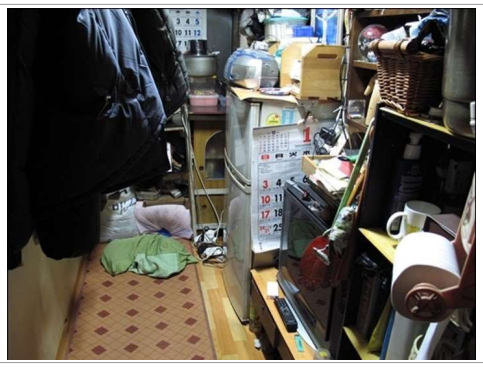
○ "앞으로도 국민의 **주거실태**를 **지속적**으로 **점검**하고 **주거여건 개선**을 위한 **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할 계획**"이라고 밝혔다.

2023. 11. 7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참고 | **쪽방촌 정비(영등포 공공주택지구) 기대효과**

□ 쪽방주민 개선사항

구분	사업 추진 전	사업 추진 후
주거환경		
주거면적	0.5 ~ 2평(1.65㎡ ~6.6㎡)	5.44평(16㎡) (예상)
월 임대료	평균 22만원	평균 3.44만원('23년도 기준)*

* 입주시기, 물가상승률에 따라 변동가능

□ 조감도

사업 추진 전

사업 추진 후